



⑦ 연합뉴스 │ < ▷ 대통령적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 >



뉴스홈 | 최신기사

# 손흥민의 이란전 선제골, 축구팬이 뽑은 '올해의 골' 선정

송고시간 | 2021-12-15 11:11



























## | '올해의 경기'엔 대표팀 1-0으로 이긴 WC 최종예선 UAE전 뽑혀



#### 손흥민과 황의조

[대한축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벤투호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지옥의 원정' 이란전에서 넣은 선제골이 국내 축구 팬들 이 뽑은 2021년 '올해의 골'의 영광을 차지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팬 투표 결과 손흥민의 이란전 골이 전체 3천547표 중 가 장 많은 1천26표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손흥민은 지난 10월 12일 원정팀의 무덤'이라 불리는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란과의 2022 카타 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4차전(1-1 무승부)에서 후반 3분 선제골을 넣었다.



황인범(카잔)이 수비를 제치고 내준 공을 이재성(마인츠)이 날카로운 침투패스로 연결하자 손흥민이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정확한 오른발 슈팅을 날려 이란 골문을 열었다.

손흥민의 골이 축구협회가 매 연말 팬 투표로 뽑는 '올해의 골'로 선정된 것은 2015년(아시안컵 결승 호주전), 2016년 (리우 올림픽 독일전), 2018년(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 이어 통산 4번째다.

####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 팬 응원에 화답하는 손흥민

[대한축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것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월드컵 2차 예 선 경기에서 황의조(보르도)가 넣은 절묘한 힐킥 골이었다.

이 골은 손흥민의 골에 불과 56표 뒤진 970표를 받았다.

이동경(울산)의 도쿄올림픽 멕시코전 중거리 골이 757표로 3위, 황인범의 월드컵 최종예선 시리아전 골이 336표로 4위에 자리 했다.

팬 투표로 함께 선정하는 '올해의 경기'로는 지난달 11일 고양종 합운동장에서 치러진 아랍에미리트(UAE)와 월드컵 최종예선 5차전이 뽑혔다.

이 경기는 황희찬(울버햄프턴)의 페널티킥 득점 하나만 나와 1-0으로 끝났다.

그러나 손흥민과 조규성(김천)의 슈팅이 잇따라 골대를 때리는 등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져 1천469명의 표를 끌어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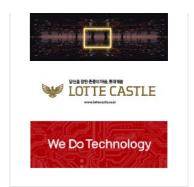
이재성, 손흥민,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의 연속골로 시원한 3-0 승리를 거둔 월드컵 최종예선 이라크와 원정 경기는 739 표를 얻어 2위에 올랐다.

월드컵 최종예선 이란 원정경기(1-1 무)가 3위, 골 퍼레이드를 벌인 월드컵 2차 예선 투르크메니스탄전(5-0 승)이 4위로 뒤를 이었다.

ahs@yna.co.kr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 관련기사

FIFA-FIFPro 베스트11 후보 23명씩 발표...손흥민·지소연 제외 토트넘, UECL 렌전 몰수패 가능성...일정 조정 없이 경기 취소 벤투호, 내년 1월 터키서 2주간 담금질...두 차례 평가전도 추진 벤투호, 내년 1월 전지 훈련서 국내파 '최종 옥석 가리기' [영상] '3-0 대승' 이라크 잡은 벤투호...아드보카드 "한국이 더 나았다"

##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15 11:11 송고

#<del>손</del>흥민 #이란 #선제골 #월드컵 #황의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생]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나 [영생] 곡사포-수송헬기 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 02:22

.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문 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크는 그대로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44 출에 고발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 66 안 맞아"(종합)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61 대병원 자원봉사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 56 재개 예열?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sub>교 40</sub> 할 예정"

뭐하고 놀까? ##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광고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뉴스+

모바일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